

# “소통·협력 통해 자생력 있는 공동체 만들겠다”

●광주 서구 풍암동 주민자치회

### 아파트 유희공간 ‘도시텃밭정원’ 조성...체험장으로도 활용 연말엔 팜 파티 추진...전자광 회장 “주민들 뭉치는데 노력”

“힐링 쉼터 건강마을”이라는 마을 비에 맞게 지속 가능한 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마을 발전과 주민 소통 강화를 위해 아파트 내 유희공간을 텃밭으로 조성하고 청소년 축제 등 다양한 교류의 장을 만들고 있는 이들이 있다.

지난 2월 활동을 시작한 광주 서구 풍암동 제5기 주민자치회가 그 주인공들이다.

주민자치회는 지역 주민 화합과 발전을 위해 꾸려진 대표기구로, 이들은 올해 첫 사업으로 서구 풍암동 중흥2차아파트 내 유희공간 208㎡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동텃밭으로 조성하고 지난달 26일 개장식을 가졌다.

전자광(61) 풍암동 주민자치회장은 3일 “기존에 텃밭을 만들고 가꾸는 활동은 계속해 왔지만 이렇게 규모가 있고 다양한 주민들이 함께 만드는 텃밭은 처음”이라며 “앞으로 많은 주민이 함께할 수 있는 여러 사업 등을 논의해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해 주민총회이제로 선정된 ‘치유 텃밭과 정원이 있는 아파트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을 위해 참여아파트를 모집하고 입주자대표회의·풍암동 주민자치회·동행정복지센터 간 부지 활용 협약을 체결했다. 경작에는 경로당·가족·단체 등 총 22개 팀이 참여한다.

해당 텃밭은 단순히 농작물을 키우는 곳만이 아닌 꽃과 나무 등이 함께하는 정원으로 조성하고 주민의 취미·여가의 공간과 더불어 어린이집 등 학생들의 체험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올해 총 8회에 걸쳐 ‘텃밭정원 운영 교육’을 지원하고 연말에는 팜(Farm)파티를 열어 공동체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풍암동 주민자치회는 그동안 마을 공동체 발전을 위해 금당산 주변 옹벽길에 마을 비둘기 활용 병풍 벽화를 만들어 산책길을 조성하고 2015년부터는 한복 주자제를 실시했다. 그 결과



광주 서구 풍암동 주민자치회는 지난달 26일 오후 마을 발전과 주민 소통 강화를 위해 중흥2차아파트 내에 조성한 ‘도시텃밭정원’ 개장식을 개최했다.

지난해 8월 제15회 광주·전남 교통·사회안전 대추전 종합대상을 수상했다.

또한 2022년부터 ‘몸과 마음이 성장하는 청소년 문화축제’를 개최, 청소년들이 도심 속 쉼터에서 부모·이웃·친구와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을 축제를 열고 있다.

올해 풍암동 주민자치회의 목표는 지속적인 소통을 위한 축제·공간 조성 등 공모사업 등을 통한 자생력 있는 공동체로 성장하는 것이다.

전 회장은 “풍암동은 금당산과 풍암호수 중간에 있는 도심과 자연이 공존하는 마을이지만

인구 감소와 소통 문화가 많이 사라진 상태”라며 “현재 이러한 사업과 활동이 주민들을 하나로 뭉치는데 독특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마을 비인 ‘힐링 쉼터 건강마을’에 맞게 활기찬 축제 개최와 사람들이 교류하고 어우러지는 공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소통·협력을 통해 마을 자치 활성화에 앞장서고 주민들이 주도하는 지속 가능한 마을 발전 모델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주성학 기자



나주 금천파출소, ‘더더더’ 정성치안 활동

나주 금천파출소는 3일 “더더더” 주민 감동 정성치안 순찰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더더’ 명칭의 첫 번째 ‘더’는 주민이 요청한 지역을 우선 순찰 노선으로 지정해 범죄 취약요소를 더 세밀하게 순찰하는 ‘더 보고’를 의미한다.

두 번째 ‘더’는 마을회관 방문 등 주민들과 접촉하고 주민들의 지역공동체 협력치안 활성화 등 선제적 예방 치안을 위한 ‘더 듣고’를 뜻한다.

세 번째 ‘더’는 주민들의 요구 사항에 대해 친절하고 상세한 피드백을 제공하며 경찰 홍보 등을 지속 실시해 ‘더 감동’을 주는 경찰 활동이다.

임재관 금천파출소장은 “‘더더더’ 정성치안 활동으로 주민들의 안전 제고와 ‘더’ 살기 좋은 금천면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정준환 기자



박정에 신의면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신안군장학재단에 500만원 기탁

신안군은 “최근 박정에 신의면여성단체협의회장이 신안군청을 방문, 군장학재단에 장학기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3일 밝혔다.

박정에 회장은 “홀로 6남매를 키우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이 많았는데, 지난 2010년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 신안군장학재단으로부터 받은 장학금이 큰 도움이 됐다”며 “장학금이 잘 전달돼 학생들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우량 신안군장학재단 이사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장학기금을 기탁해 감사하다”며 “지역 학생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박정에 회장은 신의면여성단체협의회장과 신의면여성자원봉사자회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지역 내 각종 행사 시 재능기부, 독거노인을 위한 도시락 배달, 사랑의 김장 나눔, 낙도까지 찾아가는 염색 봉사, 명절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사랑의 꾸러미 나눔 등 지역사회와 이웃을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신안=양훈 기자



## 전남개발공사, 남향 철새도래지 해양환경 정화활동

전남개발공사는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환경지킴이와 함께 목포 남향 건설사업장 인근 지역에서 환경 관리 합동 점검 후 해양환경 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환경지킴이는 지역 주민 참여를 통한 공사 ESG 경영 실천·확산을 위해 도입됐다. 지난 3월 공사 홈페이지 공모를 통해 환경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목포·무안 거주민을 대상으로 모집

해 총 10명을 위촉했다. 환경지킴이 주요 활동은 도민 눈높이로 건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비산먼지, 각종 건설 폐기물 등의 발생원을 합동 점검 후 감소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다.

이에 사업장 환경 관리 일환으로 ‘소음·비산먼지 계속장비’를 설치하기로 하는 등 실천 방안을 마련했다. /김재정 기자



## 전남도, 제주서 여수·순천 10·19사건 화합워크숍

전남도는 3일까지 이틀간 제주에서 여수·순천 10·19사건 화합워크숍을 개최하고 여순사건 진상 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했다.

여순사건 화합워크숍은 여순사건 유족회와 실무위원회, 시·군 담당자가 참석해 화합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제주 4·3유적지 방문, 소통의 시간, 제7주기 4·3추념식 참석 일정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워크숍에는 2023년 건립된 주정공

장수용소 4·3역사관과 너븐숭이 기념관, 4·3평화공원 등 제주 4·3유적지를 방문해 여순사건 위령공원 조성, 여순사건 전국화 사업 등 여순사건추진단이 앞으로 추진할 사업을 벤치마킹했다.

김용덕 전남도 여순사건지원단장은 “유족회, 시민단체, 행정기관이 한마음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화합과 상생의 길로 나아가고 제주 4·3의 선례를 본보기 삼아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



## 광주대 총학생회, 화순전남대병원에 헌혈증 기부

광주대학교는 3일 “총학생회가 지난 1일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을 찾아 헌혈증 45매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진우진 광주대 총학생회장은 “헌혈증이 어려운 환자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도 헌혈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생명 나눔의 문화를 확산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정준 화순전남대병원장은 “광주대 학생들의 헌혈증 기부는 어려운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다미 기자

## 담양문화원, ‘1회 담양문화원의 날’ 기념식 개최

담양문화원은 3일 “문화원의 도약을 다짐하는 뜻에서 문화원 개원일인 4월1일을 ‘담양문화원의 날’로 제정하고 기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기념식은 담양 문화 비전 선언문 낭독, 문화원 개원 74년 경과보고, 문화원 유공자 6명에 담양군수 공로패·담양군의회 의장 표창패·담양문화원장 표창패와 감사패 수여 순으로 진행됐다.

다양한 축하공연도 펼쳐졌다. 담양문화학교 참여 회원들이 대나무 운수대통 난타, 한국무용 ‘임이후 화선무’, 박동실제 판소리, 담양 아리랑, 설장구, 신바람 풍물장구, 어깨동무 풍요부리 등을 선보여 참석자들로부터 박수 갈채를 받았다.



정광선 부군수와 최희만 담양군의회 의장은 “담양문화원이 74년간 지역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주민들의 문화 향유 공간으로 자리매김해왔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지역 문화가 찬란하게 꽃피울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 보성경찰, 실종자 지원 민·관·경 협력체계 구축

보성경찰서는 3일 “치매노인 등 실종자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민·관·경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앞서 보성경찰은 지난해 12월 민간 드론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실종자 조기 발견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조례 제정을 위해 보성군의회·자치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이에 따라 한기섭 보성군의회원이 ‘보성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으며 지난달 27일 보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양백승 보성경찰서장은 “치매노인 등 범죄와 관련 없는 실종업무는 경찰 단독업무라기 보다는 경찰을 비롯해 모든 관계기관·협력단체



가 참여해 집중 수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조례 제정으로 실종자 본인의 안전은 물론, 가족의 신체·정신·경제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성=임병민 기자

## 여수시 보건소 전 직원,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

여수시는 3일 “시 보건소 전 직원이 지난달 5회에 걸쳐 심폐소생술 교육을 이수해 응급상황 대처 능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시는 보건소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4년도 심폐소생술 교육을 진행, 총 235명이 교육을 수료했다. 특히 섬 지역 보건진료소와 보건지소 근무 직원들도 이번 교육에 참여해 도서지역 및 의료취약 지역 응급상황 대처 능력을 높였다.

교육은 ▲신준섭 보건소장의 응급의료 특강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의식 강화 ▲의식 확인 요령 ▲119 신고요령 ▲올바른 심폐소생술 자세·방법 ▲심폐소생술 실습 ▲자



동심장중격기(AED) 사용방법 ▲기도 폐쇄 시 응급처치 방법 등 실습 위주로 진행됐다.

/여수=김진선 기자

## 동부경찰서·동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협약

광주 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는 3일 “청소년 마약·도박 등 중독범죄 예방·치유를 위한 동부경찰서·동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경찰은 마약·도박 등 중독 청소년 발견 시 센터에 연계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연계된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치유 회복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강기현 동부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도박·마약 등 중독범죄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장은정 기자

## 부음

▲이명수씨 별세, 이병노(담양군수)씨 부친상=발인 7일(일) 낮 12시 담양제일장례식장 202호 (061-382-1111).

▲양춘자씨 별세, 박인철(무송지오씨 대표)씨 모친상=발인 5일(금) 오전 8시 광주 스카이장례식장 102호 (062-951-1004).